

2024-01-29 (2024-05호)

01월 29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美 금리인하·QT 축소 단서 찾기... 달러 방향성 주목

서울, 1월29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올해 첫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 결과를 소화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방향성 거래를 재개할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05-1,350원으로 거래 레인지가 이전보다는 확대될 수 있겠다.

미국의 3월 금리인하 확률은 50% 아래로 떨어져 과도했던 시장 기대는 꽤 많이 누그러졌다. 로이터 설문조사에서는 연준의 첫 금리인하 시기를 6월로 꼽았다. 미국 물가둔화 추세에도 견조한 소비와 고용, 그리고 양호한 성장 등을 고려할 때 서둘러 연준이 정책 대응에 나설 빌미를 찾기가 쉽지 않아졌다.

이는 이번 연준 회의 결과에 시장이 실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다. 하지만, 통화긴축 종료와 정책 피봇이 결정된 상황에서 제롬 파월 의장을 통해 금리인하를 두고 한발 더 나간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을 경우 시장은 첫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기대감의 불씨를 되살릴 수도 있다.

아울러 양적긴축 축소 시사 여부는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연초 과격한 조정 이후 최근 달러는 방향성을 잃고 레인지 안에 갇혔다. 이번 연준 이벤트를 기점으로 달러가 다시 방향성을 강화한다면 달러/원은 퐁퐁 갇힌 1,330원대 레인지를 이탈할 수 있을 듯하다.

아무래도 금주는 연준 이벤트가 핵심이지만, 미국 재무부의 1분기 리펀딩 계획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

아울러 이외에도 챙겨봐야할 국내외 핵심 경제지표 발표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유로존 4분기 GDP(잠정치),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 중국 1월 공식 PMI와 차이신 PMI, 미국 1월 ISM 제조업과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등의 발표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나온다.

전주 중국의 부양책 발표 이후 중국 증시와 위안 약세 분위기가 잠시 주춤해졌는데, 중국 제조업 지표와 연준 회의 결과가 맞물려 어떤 시장 효과를 만들어낼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지표로는 12월 산업활동동향, 1월 소비자물가, 1월 수출과 무역수지 결과도 발표된다.

연초 과격한 조정 속 가파르게 오르다 잠시 속도를 늦춘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 빅 이벤트와 여러 국내외 경제지표 결과를 소화하며 변동성을 키울 텐데 이와 함께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장의 결이 형성될지 주목된다.

(편집 문윤아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 ▶ 주간 세계 5대 이슈

### ⊙ 연준 정책회의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30~31일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작 시기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연준이 이르면 3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작년 말 주식과 채권 시장은 큰 폭 상승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올해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예상보다 강력한 경제 지표와 정책결정권자들의 신중한 발언에 1분기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은 약해졌다.

제품 파일 연준 의장이 금리를 좀 더 길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할 경우 국채 수익률과 달러화가 더 반등할 수 있다.

시장은 미국 재무부의 분기별 리펀딩 발표도 주시하고 있는데, 29일에는 전체 펀딩 총액이, 31일에는 만기별 세부 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2월2일에는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연준 회의 이후에도 쉬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16만2000명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12월에는 21만6000명 증가했었다.

### ⊙ 영란은행 정책회의

영란은행은 2월1일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가 오랫동안 16년 만의 최고치를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영란은행이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면 금리를 다시 인상할 것이라는 오랜 경고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또한 연말로 예상되는 영국 총선을 앞두고 집권 보수당이 3월 봄 예산안에서 지나치게 관대하게 세금을 감면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지속불가능한 지출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은 파운드화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 중국 경제 지표

오는 31일 발표되는 중국의 공식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 경제에 심각한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의 미약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요구는 지금까지는 대체로 단편적인 구조 패키지로 충족돼 왔으며 투자자들은 한때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필수 투자 대상이었던 중국 증시에서 점점 이탈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이 은행 지급준비율을 대폭 인하하여 은행 시스템에 약 1400억 달러의 현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지만 일시적인 안도감만 가져다 줄 뿐이었다. 중국이 작년의 5% 성장률 목표를 간신히 넘어섰지만, 분석가들은 이러한 성장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국, 태국, 인도 등 다른 지역의 PMI 수치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 **메가캡 실적**

시장은 미국 대형 기술주와 성장주 실적도 주시하고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플랫폼 등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 5곳이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S&P500지수가 공식적으로 강세장에 진입한 상황에서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은 지수가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S&P500 기업의 4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은 올해 S&P500 기업 이익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유럽 은행 실적, 유로존 GDP 및 인플레이션 지표**

최근 유럽 은행들은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이익 증가와 주가 상승이라는 행복한 기분을 만끽하고 있다.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인 금리로 인해 은행들의 순이자 수입이 급증했고 주주 배당금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주 시장은 BBVA, 산탄데르, 도이치은행, BNP파리바, 유니크레디트 등의 연간 실적 발표를 주시할 전망이다.

오는 31일 발표되는 유로존 4분기 GDP 수치와 2월1일에 발표되는 1월 인플레이션 지표는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 ▶ 美주식시장 / 주간전망

### • 연준 회의, 대형주 실적, 고용지표 주시

뉴욕, 1월29일 (로이터) -

연초 강세를 보인 미국 증시는 이번 주 대형주 실적, 연방준비제도 정책회의, 고용지표 발표 등 중요한 시험대에 직면해 있다.

S&P500지수는 12월 말 이후 3% 가까이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부근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주에는 잠재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이벤트가 이러한 낙관론을 시험할 수 있다. 30일에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공개되고, 31일에는 연준 회의 결과가 나오며, 2월1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된다. 이어 2월2일에는 비농업부문 고용 보고서와 메타플랫폼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다.

내티시스자산운용의 수석 포트폴리오 전략가인 잭 자나시에비츠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시장은 우리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증시 상승을 이끈 '매그니피센트 7' 성장주 및 기술주 중 5개 종목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실적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주 실적을 공개하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의 시가총액은 S&P500의 거의 25%를 차지하며 전체 지수 성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에도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주가는 연초 대비 26% 이상 하락해 올해 S&P500지수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올해 들어 23% 가까이 상승했다.

찰스 슈왓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리즈 앤 손더스는 "더 이상 이러한 주식들 사이에 단일화된 성과는 없다"며 "실적에 하방이 있다면...시장 전체의 상승세를 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S&P500 기업들은 4.2%의 분기 이익 증가율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 평균에는 부합하나 직전 4분기 평균인 5.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연준 회의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시장을 흔들 수 있다.

이번 주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하를 시작할 만큼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충분히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신호를 찾을 것이다.

시장은 미국 재무부의 분기별 리펀딩 발표도 주시하고 있는데, 29일에는 전체 펀딩 총액이, 31일에는 만기별 세부 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주 후반 발표되는 미국 월간 고용지표는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고용이 급감하면 2022년 이후 연준이 단행한 525bp 금리 인상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할 수 있고, 예상보다 강한 고용은 인플레이션 반등을 막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월29일(일)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물가안정기로의 전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2:00)

1월30일(화)

- ⊙ 한국은행: 2023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잠정) (12:00)
- ⊙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 (2024년 제1차, 1.11일 개최, 통방) 공개 (16:00)
- ⊙ 기획재정부: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22:00)

1월31일(수)

- ⊙ 통계청: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09:00)
- ⊙ 기획재정부: 2023년 국제수입 실적(잠정) (11:30)
- ⊙ 한국은행: 2023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2월1일(목)

-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1월 수출입동향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미국과 유럽간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월29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 날짜     | 시간    | 국가  | 지표                 | 기간       | 로이터 전망 | 이전수치     |
|--------|-------|-----|--------------------|----------|--------|----------|
| 1월30일  | 08:30 | 일본  | 실업률                | 12월      | 2.5%   | 2.5%     |
| 1월30일  | 19:00 | 유로존 | GSP 속보치 QQ         | 4분기      | -0.1%  | -0.1%    |
| 1월30일  | 19:00 | 유로존 | 기업환경지수             | 1월       | -0.27  | -0.45    |
| 1월30일  | 19:00 | 유로존 | 경기체감지수             | 1월       | 96.2   | 96.4     |
| 1월30일  | 19:00 | 유로존 |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 1월       | -16.1  | -16.1    |
| 1월30일  | 23:00 | 미국  | 월간 주택가격 MM         | 11월      |        | 0.3%     |
| 1월30일  | 23:00 | 미국  | 케이스실러 20 주택가격 MM   | 11월      | 0.5%   | 0.6%     |
| 1월30일  | 23:00 | 미국  | JOTLS 구인건수         | 12월      | 8.750M | 8.790M   |
| 1월31일  | 00:00 | 미국  | 소비자신뢰지수            | 1월       | 115.0  | 110.7    |
| 1월31일  | 08:50 | 일본  | 산업생산 잠정치 MM        | 12월      | 2.4%   | -0.9%    |
| 1월31일  | 08:50 | 일본  | 소매판매 YY            | 12월      | 4.7%   | 5.3%     |
| 1월31일  | 10:30 | 중국  | 공식 제조업 PMI         | 1월       | 49.3   | 49.0     |
| 1월31일  | 10:30 | 중국  | 공식 종합 PMI          | 1월       |        | 50.3     |
| 1월31일  | 10:30 | 중국  | 공식 서비스업 PMI        | 1월       |        | 50.4     |
| 1월31일  | 14:00 | 일본  | 소비자신뢰지수            | 1월       |        | 37.2     |
| 1월31일  | 21:00 | 미국  | 모기지마켓지수            | 1월26일 주간 |        | 218.2    |
| 1월31일  | 22:15 | 미국  | ADP 전국고용           | 1월       | 135k   | 164k     |
| 1월31일  | 22:30 | 미국  | 고용비용               | 4분기      | 1.0%   | 1.1%     |
| 1월31일  | 23:45 | 미국  | 시카고 PMI            | 1월       | 48.0   | 46.9     |
| 2월1-7일 | 08:50 | 일본  | 외환보유고              | 1월       |        | 1,294.6B |
| 2월1일   | 09:30 | 일본  | 지분은행 제조업 PMI 확정치   | 1월       |        | 48.0     |
| 2월1일   | 10:45 | 중국  | 차이신 제조업 PMI        | 1월       | 50.5   | 50.8     |
| 2월1일   | 18:00 | 유로존 | HCOB 제조업 PMI 확정치   | 1월       | 46.6   | 46.6     |
| 2월1일   | 19:00 | 유로존 | 조화소비자물가지수 잠정치 YY   | 1월       | 2.8%   | 2.9%     |
| 2월1일   | 19:00 | 유로존 | 실업률                | 12월      | 6.4%   | 6.4%     |
| 2월1일   | 19:00 | 미국  | 챌린저 해고건수           | 1월       |        | 34.817k  |
| 2월1일   | 21:30 | 미국  |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 1월22일 주간 | 210k   | 214k     |
| 2월1일   | 22:30 | 미국  | 생산성 잠정치            | 4분기      | 2.5%   | 5.2%     |
| 2월1일   | 22:30 | 미국  | S&P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 1월       |        | 50.3     |

|        |       |    |                  |     |      |        |
|--------|-------|----|------------------|-----|------|--------|
| 2월2-9일 | 00:00 | 미국 | 자동차판매            | 1월  |      | 3.070M |
| 2월2일   | 00:00 | 미국 | 건설지출 MM          | 12월 | 0.5% | 0.4%   |
| 2월2일   | 00:00 | 미국 | ISM 제조업 PMI      | 1월  | 47.3 | 47.4   |
| 2월2일   | 22:30 | 미국 |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 1월  | 173k | 216k   |
| 2월2일   | 22:30 | 미국 | 실업률              | 1월  | 3.8% | 3.7%   |
| 2월2일   | 22:30 | 미국 | 평균 시간당 임금 MM     | 1월  | 0.3% | 0.4%   |
| 2월3일   | 00:00 | 미국 |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 12월 |      | 0.0%   |
| 2월3일   | 00:00 | 미국 | 공장주문 MM          | 12월 |      | 2.6%   |
| 2월3일   | 00:00 | 미국 |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 1월  | 78.8 | 78.8   |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월29일 (월)

- ⊙ 루이스 데 퀴도스 유럽중앙은행 부총재, 씨티프라이빗뱅크 주최 투자전망 컨퍼런스서 연설 (오후 9시)

1월30일 (화)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시작 (31일까지)

1월31일 (수)

- ⊙ 일본은행 1월22-23일 정책회의 주요 의견 요약 (오전 8시50분)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발표 (1일 오전 4시),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 (1일 오전 4시30분)

2월1일 (목)

- ⊙ 스웨덴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및 통화정책보고서 공개 (오후 5시30분)
- ⊙ 영란은행 금리 결정 발표 및 회의록 공개 (오후 9시)
- ⊙ 휴장국가: 말레이시아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그래프/분석)-투자자들 美 금리 인하 베팅 축소... 자산별 움직임은?

뉴욕, 1월24일 (로이터) -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의 신중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올해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빨리 인하할지에 대한 베팅을 재고하고 있다.

연준이 올해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작년 말 주식과 채권은 폭발적으로 상승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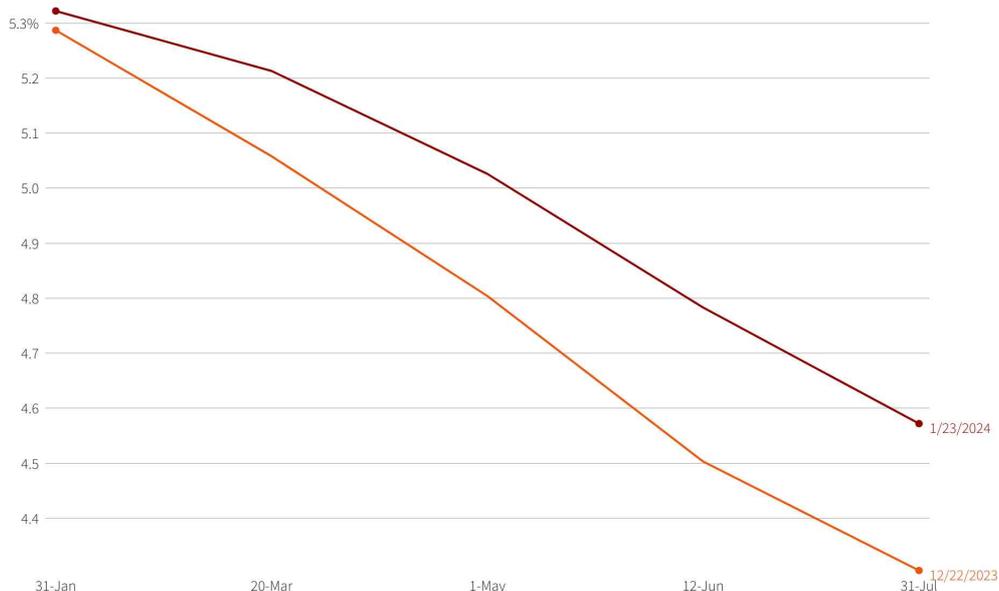
투자자들은 여전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지,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번 달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국채 가격은 상승폭을 일부 줄였고, 달러는 다시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오는 30~31일 정책회의에서 연준이 최근 경제 강세와 금리 인하 시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 소재 모넥스 USA의 외환 트레이더인 헬렌 기븐은 "시장은 2023년 말까지 장미빛 안경을 쓰고 연준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전망이 다소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Rates reth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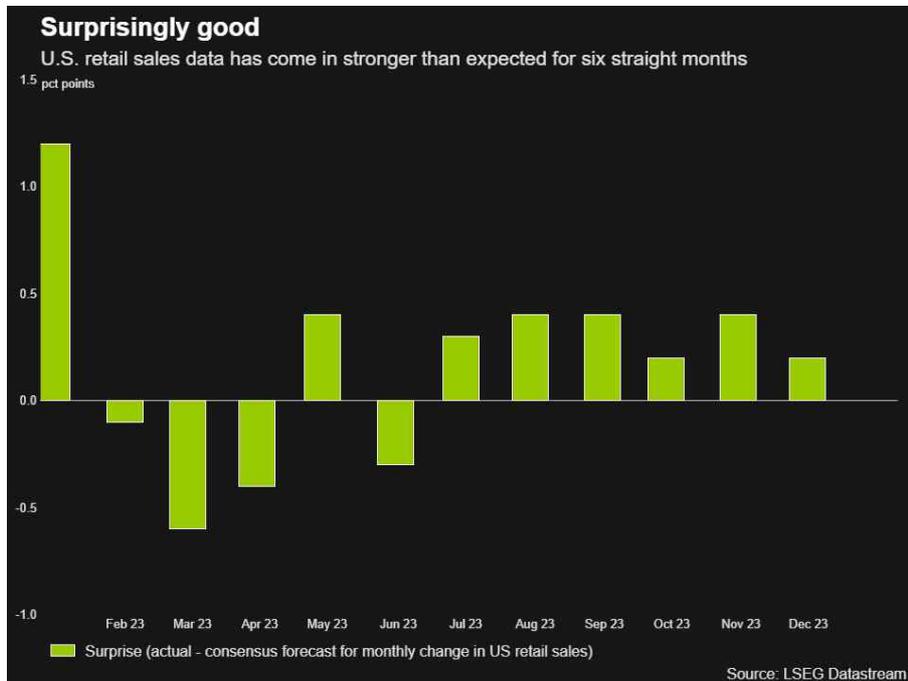
Over the last month, traders have pushed back expectations for U.S. interest rate cuts



Note: Based on Fed fund futures as of 1/23/2024  
Source: LSEG| Reuters graphic/Saqib Ahmed

최근 연준의 몇몇 관리들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회복되고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통화정책 완화가 임박했다는 인식에 맞서는 발언을 내놓았다. 경제 일부 분야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증거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이제 연준이 3월이 아닌 5월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3일 연방기금 선물은 3월 연준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41%로 반영했는데 이는 한 달 전의 88%에서 하락한 수치다.



미국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데이터 중에는 12월 소매판매와 소비자물가가 있었다.

투자자들은 오는 26일에 발표될 또 다른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인 1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기다리고 있다.

UBS 글로벌 자산 관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브라이언 로즈는 "경제 성장과 임금 상승의 견실함을 감안할 때 연준은 여전히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Taking it easy

Falling Treasury yields and a strong rally in stocks sent the U.S. Goldman Sachs global financial conditions index to a 16-month low in Dec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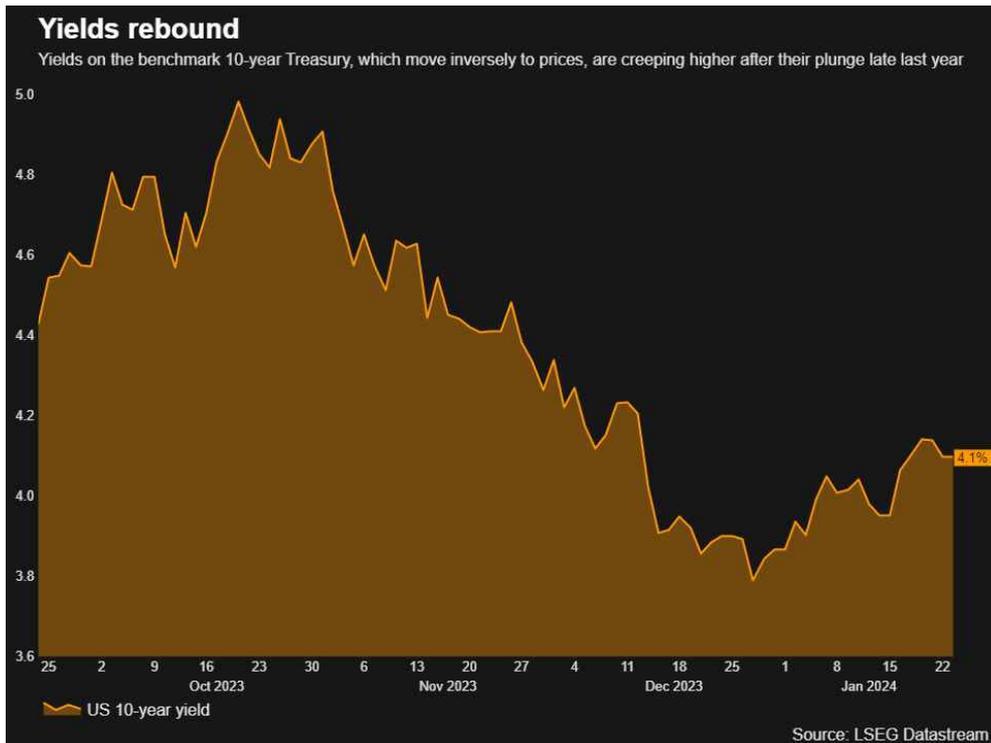


Source: Goldman Sac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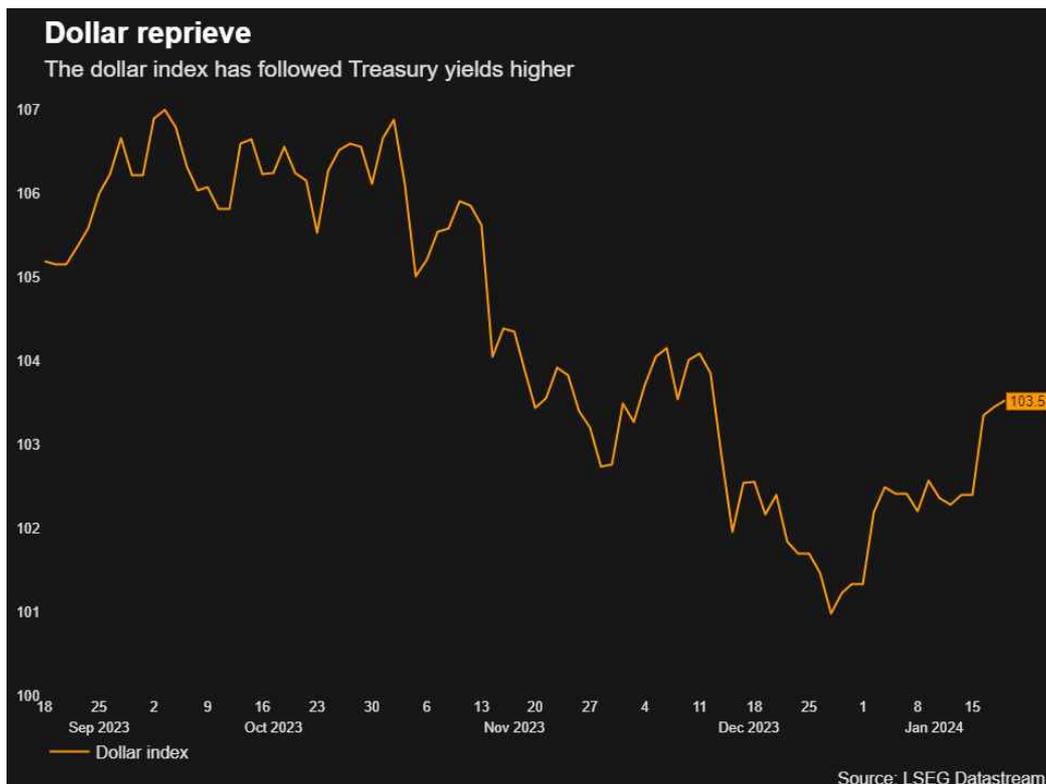
경제의 자금 가용성을 측정하는 금융 여건은 2023년 말 주가가 급등하고 채권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급격히 완화됐다.

골드만삭스 금융 여건 지수는 99.39로, 12월 말에 기록한 16개월 만의 최저치인 99.21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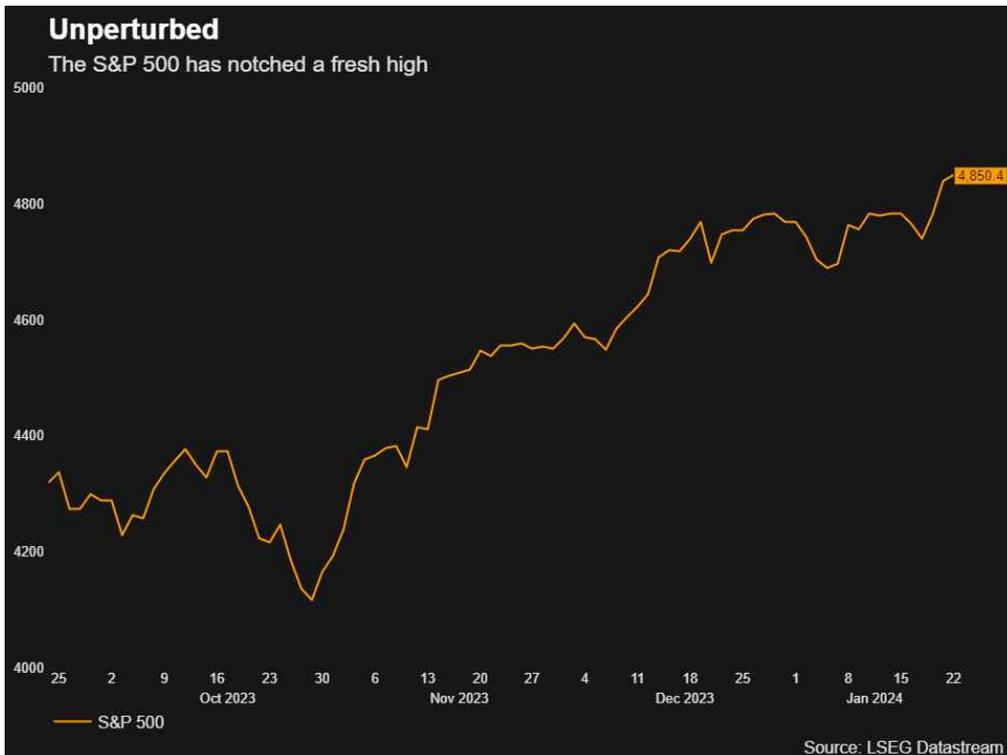
코메리카 웰스 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인 존 린치는 23일 보고서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은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발했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강한 경제 지표는 채권 가격과 반비례하는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12월 저점에서 약 35bp 상승해 4.14% 부근을 기록 중이다. 올해 국채 발행이 2조달러로 두 배 가까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국채 가격에 부담을 주고 있다.



국채 수익률 상승은 달러지수 상승을 도왔다. 달러지수는 올해 2.3% 가량 상승해 6주 만의 최고치 부근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주가는 1월 들어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다. 12월에 4.4% 상승한 S&P500지수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대형 기술주와 성장주의 랠리 덕분에 이번 달에는 1.7% 상승했다.

그러나 도이치은행 애널리스트들은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고 금융 여건이 완화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낙관론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투자자들, 中 경제 회복의 헛된 기다림을 포기하다

상하이/뉴욕, 1월24일 (로이터) -

희망에서 망설임으로,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항복으로, 중국의 글로벌 투자자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중국에서 이제 빠져나오려 하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필수 투자 대상'이었던 중국에서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지난 22일 홍콩과 상하이 증시는 2022년 4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23일 리창 중국 총리가 내각 회의를 주재하고 블룸버그뉴스가 당국이 시장 안정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매도세는 진정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투자자들 우려가 가신 것은 아니다.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신흥시장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데릭 어원은 "어느 정도 항복한 분위기"라며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중국 정부는 불에 약간의 물을 끼얹는 식의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스프링은 작년부터 중국 비중을 축소해 왔다.

이번 주 글로벌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경제의 방향성, 특히 지난해 중국의 판데믹 이후 회복을 방해한 불투명한 규제 변화에 대한 수개월간의 좌절감이 쌓인 데서 비롯됐다.

중국 증시 CSI300지수는 2021년 2월 정점을 찍은 이후 47% 하락했고, 홍콩 항셱지수는 49% 급락했다. 반면 일본의 닛케이지수와 미국 S&P500지수는 각각 24% 상승했다.

상하이와 선전 증권 거래소에서는 2021년 말 이후 3조달러의 자금이 증발했다.

#### ◆ 과감한 조치 필요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을 둘러싼 부정적 이슈가 주식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며 강력하고 포괄적인 완화, 부양책, 미중 관계 개선, 거기에 더해 주택 및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의 안전 장치를 포함한 대규모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말했다.

월빙턴 트러스트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의 최고투자책임자 토니 로스는 중국의 경제 활동과 규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중국에 대한 비중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신흥 시장 운용사들은 중국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비중을 더 많이 축소하는 운용사를 선택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은 다를 것이라는 희망은 당국이 더 건전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단기적인 후퇴는 간과할 것이라는 암시로 일찌감치 꺾였다.

클락타워 그룹의 수석 전략가인 마르코 파픽은 금융 부문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지금 중국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 이후에는 은행들이 동물적 감각을 갖고 대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은행을 단속하면 경기 회복이 더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달에 간절히 기대했던 정책 금리 인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바주카포와는 정말 거리가 멀다... 그들은 물총도 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 ◆ '미시적' 이야기

투자자들이 인도, 일본 및 기타 신흥 시장으로 몰리고 있지만, 일부 해외 자금은 여전히 중국에 남아 있으며, 이는 연기금과 MSCI 신흥시장지수(중국이 26% 이상을 차지하는 지수)에 인덱싱된 상품에 속하는 자금들이다.

국제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중국 포트폴리오에서 822억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중국을 제외한 신흥 시장에는 2611억달러의 비거주자 포트폴리오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십 개의 상장지수펀드도 아직 중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의 18조달러에 달하는 중국 경제의 일부를 소유해야 한다는 압박은 이제 재량으로 바뀌었다고 UBP의 그룹 수석 전략가인 노먼 빌라민은 말

한다.

그는 작년 10월 중국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낮추고 인도를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이야기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이 세계의 제조업 중심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거시적 이야기'보다는 중국에 있는 몇 개의 좋은 기업을 소유하는 '미시적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반창고 처방

한편 중국 본토 투자자들은 정책결정권자들이 주식 안정화 기금에 약 2조위안(2,798억8,000만달러)을 동원할 수 있다는 블룸버그뉴스의 보도에 열광하지 않고 있다. 상하이 지수는 23일 심리적으로 중요한 2,800포인트 아래에서 마감했다.

판야오 자산운용의 사이먼 유 부사장은 "구제 기금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소용돌이쳐왔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지 애널리스트들은 작년부터 구제 기금 설립을 촉구해왔다.

지난 2015년 증시 폭락 당시에도 국책 펀드인 센트럴후이진, 중국증권금융공사, 중국 외환 규제 당국 산하 투자 기관들을 포함한 투자자 그룹으로 구성된 '내셔널 팀'이 출범했었고 그들의 매수가 증시를 끌어올렸지만, 그 효과는 잠시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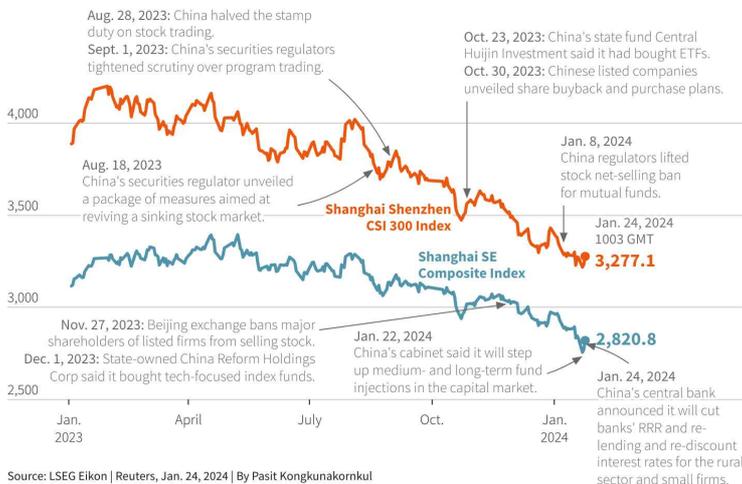
사이먼 유는 정부가 매년 수천억위안 규모의 주식을 매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막연한 수사만 난무한다면 투자자들의 기대는 비관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그래스호퍼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다니엘 탄은 "문제의 규모에 비하면" 2조위안의 펀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당국의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당분간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Chinese stock market turbulence

China's blue-chip CSI300 Index is at the lowest level in nearly five years, despite a slew of government measures to revive flagging stocks.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단독)-中 규제당국, 펀드들에 주가지수선물 시장서 공매도 제한 요청 - 소식통들

상하이/베이징, 1월24일 (로이터) -

중국 증권 규제당국이 주가 하락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부 헤지펀드 매니저들에게 중국 주가지수선물 시장에서 공매도를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고 두 명의 소식통이 밝혔다.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중국 금융선물 거래소로부터 무모한 공매도, 특히 헤지 목적이 아닌 '네이키드' 공매도에 대해 경고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헤지펀드 소식통은 거래소가 최근 자신의 회사에 투기 목적의 공매도를 하지 말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국 금융선물 거래소(CFFEX)와 거래소를 감독하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단독)-테슬라, 2025년 중반 새로운 전기차 생산 계획 - 소식통들

샌프란시스코/디트로이트, 1월24일 (로이터) -

테슬라는 공급업체들에게 2025년 중반에 코드명 '레드우드'로 명명된 새로운 대중적 전기 자동차의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4명의 관계자가 전했다. 그 중 2명은 이 모델을 소형 크로스오버라고 설명했다.

2만5,000달러의 보급형 자동차를 포함한 이러한 모델을 통해 테슬라는 저렴한 휘발유 자동차 및 중국의 BYD가 만든 것과 같은 저렴한 전기차와 경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BYD는 2023년 4분기에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전기차 제조업체로 등극한 바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020년에 2만5,000달러짜리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처음 약속했다가 나중에 계획을 보류했다가 이제 다시 부활시켰다.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제품인 모델3 세단은 현재 미국에서 3만8,99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두 소식통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공급업체들에 '레드우드' 모델에 대한 '견적 요청' 또는 입찰 초대장을 보냈으며, 주간 생산량을 1만대로 예상했다.

세 명의 소식통은 2025년 6월에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모두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익명을 조건으로 말했다.

테슬라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단독)-中, 증시 폭락에 위안 안정 조치 취해 - 소식통들

상하이/베이징, 1월23일 (로이터) -

중국의 주요 국영은행들이 22일 역외 위안 유동성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동시에 주식 폭락에 따라 국내에서는 위안 대비 달러를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등 위안 안정 조치를 취했다고 정통한 소식통 4명이 로이터에 밝혔다.

소식통 중 한 명은 이같은 조치는 중국 A주가 급락하면서 위안화가 너무 빨리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중국 증시 상하이지수는 2.7% 하락하며 2022년 4월 이후 가장 큰 일일 하락률을 기록했다.

나티시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게리 응은 "위안화를 안정시키고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시장 심리에 대응하기 위한 분명한 정책 신호"라고 말했다.

해외 펀드들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16억 달러 규모의 중국 주식을 매도했다.

또 이날 한 소식통은 역외 시장에서 국영은행들이 다른 은행에 대한 대출을 줄이면서 역외 위안 유동성이 타이트해졌다고 전했다.

한편 세 명의 소식통은 국영은행들이 위안화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국내 현물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달러당 7.2위안 수준을 방어하기 위해 현물 시장에서 달러 매도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단독)-中, 빚 많은 지방 정부에 일부 인프라 프로젝트 중단 명령 - 소식통들

1월22일 (로이터) -

중국이 부채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에 정부가 자금을 대는 일부 인프라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정통한 소식통 3명이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원은 최근 몇 주 동안 13조달러에 달하는 지방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지방 정부와 국영은행에 전국 12개 지역에서 계획된 투자의 절반 미만이 완료된 프로젝트의 건설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한은, 시중은행과도 외환보유액 FX 거래 예정... 선정 기관수는 아직 미정**

서울, 1월26일 (로이터) -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운용할 때 수반되는 FX거래를 시중은행들을 통해서도 처리하기로 했다.

이전부터 이러한 제도를 추진해온 한은은 시중은행이 FX거래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으로 본 데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외환제도 변경과 발을 맞춰 정책적인 지원을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FX거래는 유로/달러, 엔/달러 등의 이종통화 거래다.

한은 관계자는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외환보유액 운용시) FX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적용)시기는 올해 가능한 한 빨리 선정하려고 한다. 다만, 아직 선정 기관 개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말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외환보유액은 4201.5억달러고, 2022년 말 달러 자산은 72% 수준이었다.

(박예나 기자; 편집 문운아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